

경제동향

요 약

경 기 생산/출하/재고

고 용 취업자/실업자/월가

금 용 시장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부동산 건설경기/주택가격



요 약

경기

- 서울의 제조업부문 경기침체 지속
 -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재고가 증가하여 경기하강국면 지속
 - 산업생산은 작년 4월에 비해 4.0% 감소하고 생산자 제품재고는 6.8% 증가

고용

- 서울의 고용여건 소폭 개선
 - 건설업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은 지난달에 비해 0.3%p 하락
-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 도시가스요금 인하와 집세 하락 등으로 인해 상승폭이 둔화되어 4월중 0.2% 증가

금융

- 금리 하락세 지속
 - 경기회복부진, 고유가, 시중자금의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인해 금리는 0.15%p 하락
- 종합주가지수 큰 폭 하락
 - IT업종 1/4분기 기업실적부진, 미국증시 약세 등으로 종합주가지수 54.38p 하락
- 원/달러 환율 하락세 지속
 - 원/달러 환율은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미국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 18.4 하락
- 서울의 창업동향 소폭 둔화
 - 신설법인수는 1,789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7.1% 감소하고 어음부도율은 0.01%p 증가

부동산

- 서울의 건설경기 침체 지속
 -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4월에 비해 7.4% 감소하고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0.7% 상승하고 3개월 연속 상승세 시현

〈표〉 4월 주요경제 지표

(단위: %, %p)

구 분		2004.4	2005.1	2005.2	2005.3	2005.4
경기	산업생산	3.2	0.2	-15.4	-0.5	-4.0
	생산자 제품재고	1.9	9.2	4.6	7.4	6.8
고용	실업률	-0.4	0.3	0.0	-0.3	-0.3
	소비자물가	-0.1	0.6	0.6	0.6	0.2
금융	국고채(3년)	-0.07	0.78	-0.02	-0.13	-0.15
	환율	26.7	-9.5	-19.6	9.5	-18.4
부동산	건축허가면적	-47.6	-35.9	-23.5	-14.6	-7.4
	주택매매가격	0.4	-0.3	0.6	0.3	0.7

주: 증감의 비교시점은 전년동월대비임, 단 금융, 고용, 주택매매는 전월대비임

| 생 · 산 |

경기침체국면 지속

✓ 전국 경기회복 지연

- 전국의 산업생산은 작년 4월에 비해 3.8% 증가하였으나 3월(4.9%)보다 증가폭이 둔화됨
- 이는 반도체,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 IT부문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섬유제품, 음식료품 등이 감소한데에 기인함
- 세부업종별로 기타운송장비(23.5%), 반도체(13.8%), 자동차(11.3%) 등이 산업생산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섬유제품(-9.6%), 기타 전기기계(-5.7%), 음식료품(-3.8%) 등은 감소를 나타냄
- 설연휴로 인해 생산차질이 빚어졌던 2월(-7.3%)을 제외하면 2003년 8월(1.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서울 경기침체 지속

- 서울 산업생산은 작년 4월에 비해 4.0% 감소하여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전국의 산업생산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3월(-0.5%)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어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부업종별로 휴대용 전화기 등의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11.4%), 기성보통의의를 포함한 의복 및 모피제품(6.1%)은 증가하였으나, 인쇄기 등의 기타기계 및 장비(-25.9%), 두부 등의 음식료품(-13.4%)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됨

✓ 서울 산업생산 중공업부문 감소세로 반전, 경공업부문 감소세 지속

- 산업구조별로 보면 중공업부문은 작년 4월보다 6.4% 감소하여 3월(1.1%)에 비해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경공업부문은 4.0% 감소하여 2004년 12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
- 중공업부문에서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11.4%), 조립금속제품(3.3%)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100.0%), 가구 및 기타제품(-44.3%)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됨
- 경공업부문에서는 의복 및 모피제품(6.1%)이 증가하였으나, 가죽, 가방 및 신발(-22.4%),

음식료품(-13.4%) 등이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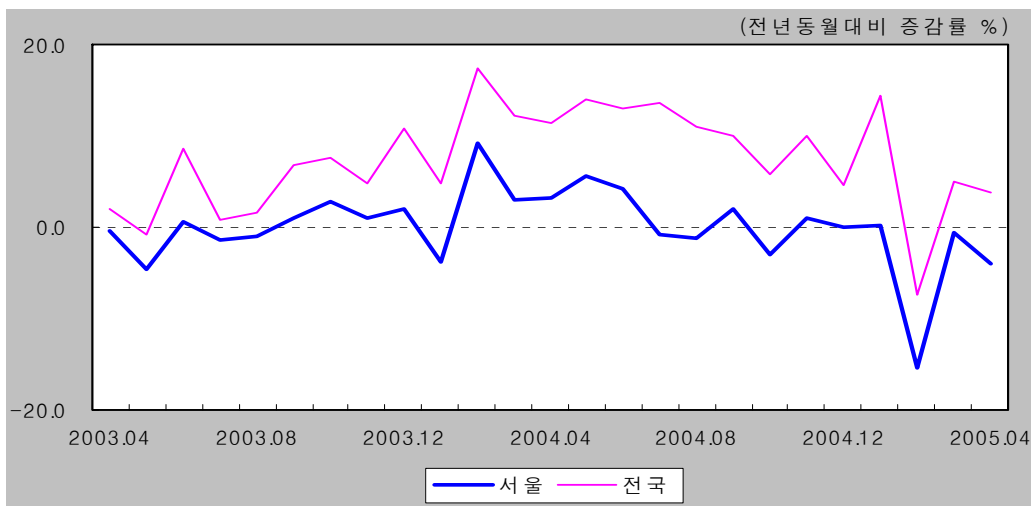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4	2005.1	2005.2	2005.3	2005.4
전년동월비	전국	11.4	14.3	-7.3	4.9	3.8
	서울	3.2	0.2	-15.4	-0.5	-4.0
	중공업	1.5	2.7	-28.1	1.1	-6.4
	경공업	4.0	-2.4	-10.3	-3.4	-4.0
전월비	전국	0.3	3.1	-4.6	3.9	-1.7
	서울	0.0	-0.5	-7.6	13.0	-4.6
	중공업	-9.8	-15.9	-20.3	55.2	-16.5
	경공업	-0.1	-6.7	-14.6	19.0	-0.7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년동월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산업활동동향],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4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그림〉 서울, 전국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 · 하 |

생산자 제품출하 감소폭 확대

✓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 증가세 둔화

-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는 작년 4월에 비해 2.6% 증가하여 3월(4.4%)보다 증가폭이 둔화됨
- 이는 자동차,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부문의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생산자 제품출하가 감소세로 전환한데에 기인함
- 세부업종별로 기타운송장비(25.0%), 반도체(13.1%), 자동차(10.7%)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섬유제품(-10.4%), 음식료품(-5.5%) 등에서 감소를 나타냄
- 전반적으로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는 2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이 지속되었지만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정체된 모습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 감소세 지속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는 작년 4월에 비해 2.9% 감소하여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됨
- 전국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거나 3월(-2.3%)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어 아직 정체된 모습
- 세부업종별로 인쇄기 등의 기타기계 및 장비(-24.9%), 아이스크림류 등의 음식료품(-15.1%) 등은 감소하였으나, 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19.1%), 기 정보통외의를 포함한 의복 및 모피제품(8.0%) 등에서 증가를 나타냄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 중공업부문, 경공업부문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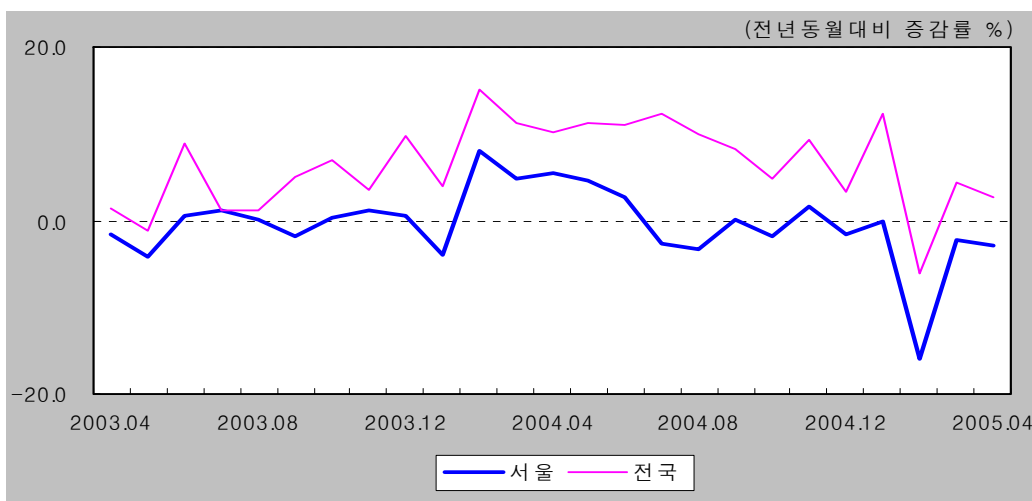
- 산업구조별로 중공업부문은 작년 4월에 비해 1.8%, 경공업부문은 5.4%로 감소를 나타냄
- 중공업부문에서는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19.1%), 의료광학기계 및 시계(4.3%) 등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100.0%), 가구 및 기타제품(-42.1%), 기타기계 및 장비(-24.9%) 등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
- 경공업부문에서는 가죽, 가방 및 신발(-23.5%), 종이제품(-5.6%) 등이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15.1%), 의복 및 모피제품(8.0%) 등에서 증가를 나타냄

〈표〉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4	2005.1	2005.2	2005.3	2005.4
전년동월비	전국	10.2	12.4	-6.1	4.4	2.6
	서울	5.4	-0.2	-15.9	-2.3	-2.9
	중공업	5.4	0.8	-27.2	-0.2	-1.8
	경공업	5.6	-2.4	-11.7	-6.3	-5.4
전월비	전국	1.0	3.6	-4.3	3.6	-2.0
	서울	-1.0	0.9	-6.7	10.3	-2.5
	중공업	-12.0	-14.5	-16.7	50.2	-13.4
	경공업	-1.5	-9.7	-14.1	16.6	-0.5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월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산업활동동향],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4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그림〉 서울,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 재 · 고 |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세 둔화

✓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 소폭 증가

-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작년 4월에 비해 11.8% 증가하여 전월(9.3%)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됨
- 이는 반도체, 제1차 금속, 화학제품 등 전반적인 부문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된 데에 기인함
- 세부업종별로 제1차 금속(34.3%), 반도체(33.8%), 영상음향통신(23.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담배(-29.1%), 섬유제품(-6.3%), 자동차(-3.1%) 등에서 감소를 나타냄
- 재고율은 102.7%로 제조업 부문의 출하지수가 전월에 비해 감소한 반면 재고지수는 소폭 확대되면서 3월보다 2.9%p 증가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소폭 감소

- 서울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작년 4월에 비해 6.8% 증가하였으나 전국의 제품재고(11.8%)보다 낮은 수준임
- 세부업종별로는 껌 등의 음식료품(43.7%), 기성보통의의, 소아용기성외의를 포함한 의복 및 모피제품(21.2%) 등이 증가하였음
- 반면, 기관용부품 등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100.0%), 컴퓨터 및 사무기기(-54.5%),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포함한 고무 및 플라스틱(-41.8%) 등에서 감소를 나타냄
- 재고율은 123.7%로 지난달보다 13.6%p 감소하였으나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중공업부문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경공업부문 증가세 둔화

- 산업구조별로 중공업부문은 작년 4월에 비해 12.3% 감소하여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경공업부문은 16.2%로 3월(22.1%)에 비해 증가세 둔화
- 중공업부문에서는 세부업종별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100.0%), 컴퓨터 및 사무기기(-54.5%)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기타 전기기계(18.1%), 제1차 금속산업(13.5%) 등은 증가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음식료품(43.7%), 섬유제품(21.2%) 등은 증가하였으나, 종이제품(-46.6%), 가죽, 가방 및 신발(-33.5%)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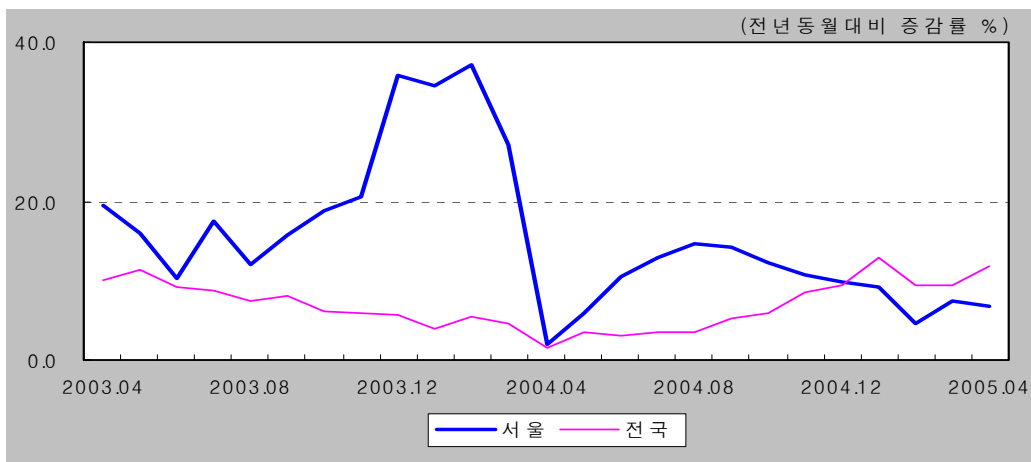
〈표〉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4	2005.1	2005.2	2005.3	2005.4
전년동월비	전국	1.5	12.9	9.3	9.3	11.8
	서울	1.9	9.2	4.6	7.4	6.8
	중공업	-26.0	-7.5	-13.5	-13.5	-12.3
	경공업	24.6	21.9	17.3	22.1	16.2
전월비	전국	-1.1	2.2	-0.4	0.8	1.0
	서울	-11.6	-0.5	-1.4	0.5	-12.2
	중공업	-29.4	4.8	-11.1	-2.6	-28.4
	경공업	1.7	1.0	-1.7	3.0	-3.2
재고율	전국	92.9	98.1	102.5	99.8	102.7
	서울	111.2	142.7	150.7	137.3	123.7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전월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산업활동동향],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4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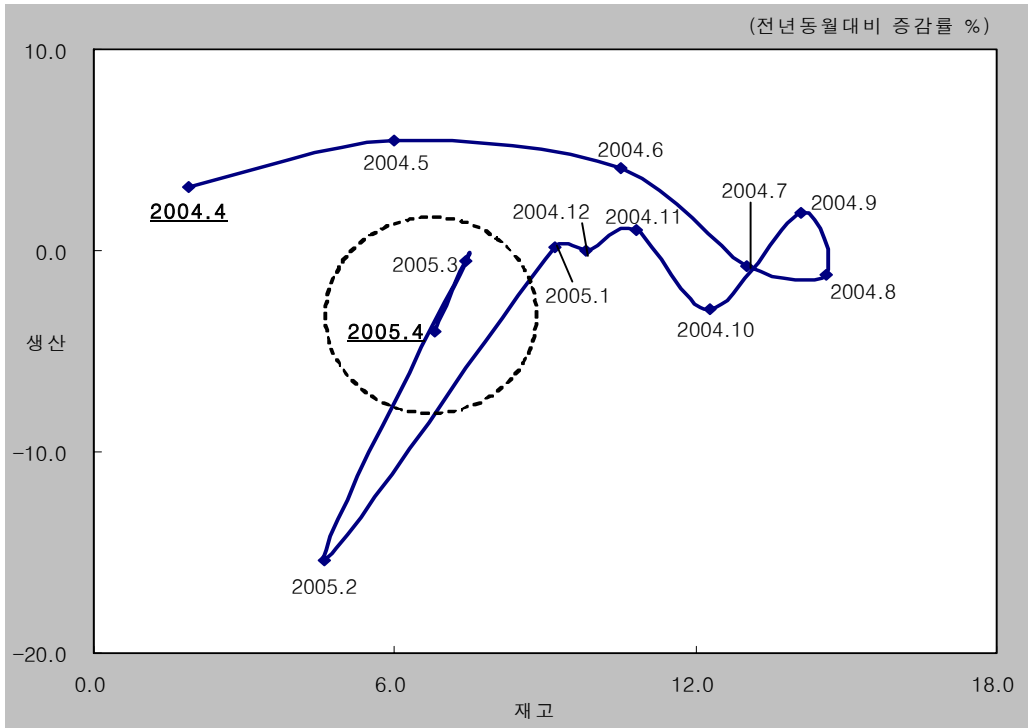


〈그림〉 서울,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생산 감소, 재고의 증가로 경기 침체 지속

✓ 서울의 제조업부문 경기는 4월중 하강국면 지속

- 생산·재고 증가율의 경기국면 분석에 의하면 서울 경기는 산업생산 감소세 지속, 재고 증가로 경기침체 상황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생산은 증감이 반복되고 있지만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어 경기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생산자 제품재고는 2004년 8월(14.6%)이후 재고의 증가세 둔화가 계속되어 재고조정 과정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생산, 재고 증감률 추이

| 취 · 업 · 자 |

서울시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전국의 4월중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전국의 취업자는 22,934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1.6% 증가
-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458천명으로 0.1% 감소
- 전국의 고용사정 개선은 건설업 등에서의 취업자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3월 1,759천명이었던 건설업 취업자는 5.3% 상승을 보여 전년동월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이외, 농림어업(13.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0.8%)이 증가를 나타냄

✓ **서울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서울의 취업자는 4,892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0.4% 증가
-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142천명으로 0.3% 감소
- 서울의 취업자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성 취업자 및 건설업 부문 고용사정 개선**

- 성별 취업자로는 남성이 2,838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0.1%, 여성이 2,054천명으로 0.7% 증가
-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 증가세를 보여 건설업은 19천명(4.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16천명(1.0%)이 증가함
- 반면, 제조업(-0.5%), 도소매·음식숙박업(-1.3%)은 여전히 감소세를 나타내 경기 전반이 침체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 **사무직 종사자 및 일용근로자 증가**

-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가 지난달에 비해 3.0%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0.4%), 서비스·판매종사자(0.3%) 등이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반면, 전문·기술·행정 관리자(-1.1%)는 감소를 나타냄
- 이와 같은 취업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취업이 일용근로자(7.0%)와 임시근로자

- (0.7%)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보임
-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5.3%), 자영업주(-2.2%)가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2.7%의 감소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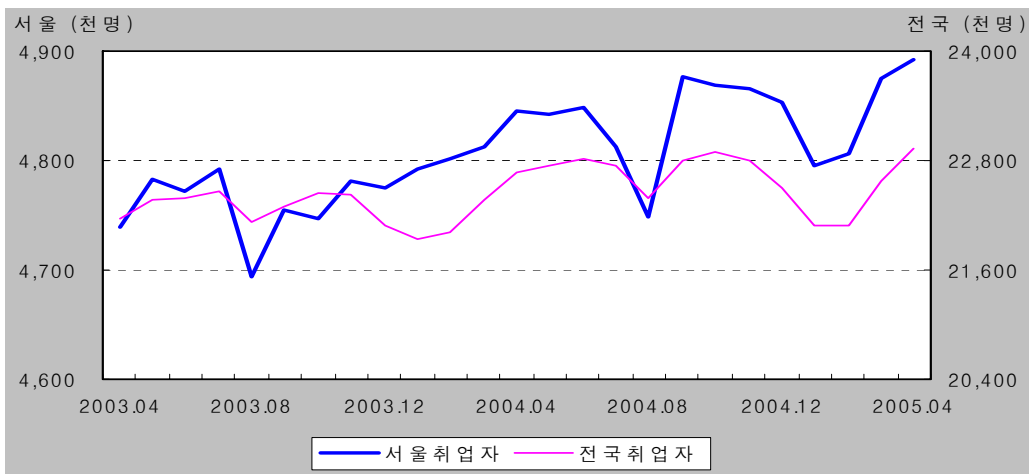
〈표〉 2005년 4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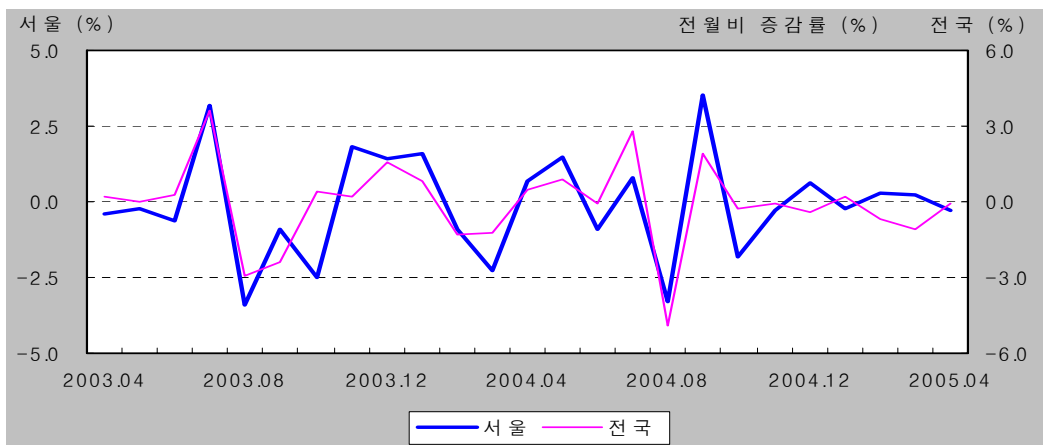
구 분	2004.4	2005.3	2005.4	전 년 등 월 비		전 월 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국	22,673	22,576	22,934	261	1.2	358	1.6
	서울	4,846	4,874	4,892	46	0.9	18	0.4
청년층	전국	4,557	4,464	4,458	-99	-2.2	-6	-0.1
취업자	서울	1,144	1,146	1,142	-2	-0.2	-4	-0.3
성별	남자	2,794	2,834	2,838	43	1.5	4	0.1
취업자	여자	2,052	2,041	2,054	3	0.1	14	0.7
산업별 취업자 (서울)	농림어업	7	3	5	-2	-32.4	2	70.4
	광공업	814	818	815	0	0.0	-4	-0.4
	제조업	813	818	814	0	0.0	-5	-0.5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025	4,054	4,073	48	1.2	19	0.5
	건설업	421	409	428	7	1.5	19	4.6
	도소매·음식숙박	1,448	1,428	1,410	-38	-2.6	-18	-1.3
	사업개안공공서비스	1,636	1,690	1,706	70	4.3	16	1.0
	전가운수·통신·금융	520	526	529	9	1.8	3	0.5

주: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4월중 서울시 고용동향]



<그림> 서울, 전국 월별 취업자 동향



<그림> 서울, 전국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실 · 업 · 자 |

실업률 소폭 개선

✓ 전국의 4월중 실업자 감소세 지속

- 전국의 실업자는 지난달에 비해 50천명 감소한 857천명으로 5.5% 감소
- 실업률은 3.6%로 전월보다 0.3%p 감소하여 고용사정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임

✓ 서울의 실업자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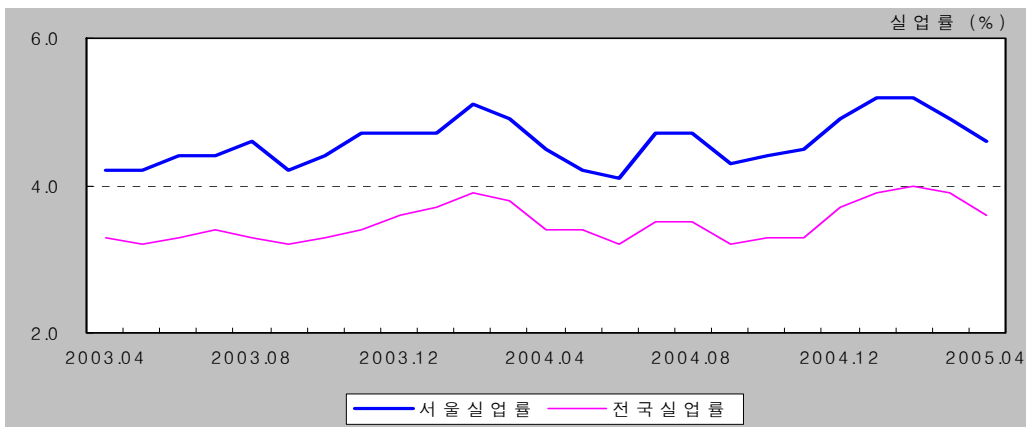
- 서울의 실업자는 236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6.7% 하락하여 2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실업률은 4.6%로 전월보다 0.3%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국의 실업률보다 1.0%p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 서울의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실업자 및 실업률의 감소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데에 기인함

〈표〉 2005년 4월 실업동향

(단위: 천명, %, %p)

구 분		2004.4	2005.3	2005.4	전 년 동 월 비		전 월 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전국	실업자	809	907	857	48	5.9	-50	-5.5
	실업률	3.4	3.9	3.6	0.2	-	-0.3	-
서울	실업자	226	253	236	10	4.6	-17	-6.7
	실업률	4.5	4.9	4.6	0.1	-	-0.3	-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4월중 서울시 고용동향]



〈그림〉 서울, 전국 실업률 추이

| 물 · 가 |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 **전국의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 전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1% 상승에 머물러 3월(0.8%)보다 증가세가 둔화됨
- 이는 농산물 및 공업제품 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그 외 집세와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서비스물가가 안정된 것에 기인함

✓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2% 상승하여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서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유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하락하고 집세가 내려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상품부문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서비스부문은 감소세로 반전**

- 상품성질별로는 지난달에 비해 농축수산물 및 공업제품을 포함하는 상품부문은 농축수산물과 석유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0.5% 증가,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부문은 집세 하락 등의 영향으로 0.2% 감소
- 비목별로는 도시가스 요금이 내린 광열·수도(-1.3%)와 교양오락(-0.6%) 부문 등은 하락하였으나, 농산물이 오른 식료품(0.6%), 석유류가 오른 교통·통신(0.4%), 의약품 가격이 인상된 보건의료(0.4%)부문 등이 상승함

✓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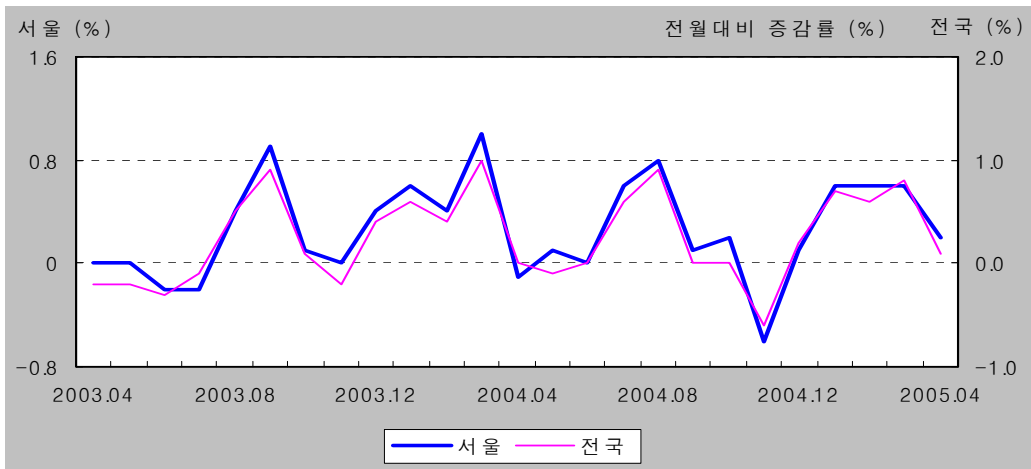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위주로 하는 생활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2% 상승
- 계절적 변동이 큰 어개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산지출하량 감소로 과일류(6.4%)가 크게 증가하여 2.2%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0=100, 단위: %)

구 분		2004.4	2005.1	2005.2	2005.3	2005.4
전년동월비	전국	3.1	3.1	3.3	3.1	3.1
	서울	3.5	3.2	3.3	2.9	3.2
	상품	3.9	3.8	4.3	4.0	4.7
	성질별 서비스	3.3	2.8	2.7	2.2	2.1
	생활물가	4.3	5.1	5.3	4.8	5.3
	신선식품	10.5	0.8	5.1	6.4	8.8
전월비	전국	0.1	0.7	0.6	0.8	0.1
	서울	-0.1	0.6	0.6	0.6	0.2
	상품	-0.2	1.2	1.2	0.5	0.5
	성질별 서비스	0.0	0.2	0.2	0.7	-0.2
	생활물가	-0.2	1.0	0.9	1.1	0.2
	신선식품	-0.1	2.7	7.0	1.6	2.2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 동향]



〈그림〉 서울, 전국 소비자물가 장기추이

| 시 · 증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 유통수익률 하락세 지속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하락세 지속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경기회복 부진, 고유가 지속, 4월 중반 국내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4월중 0.15%p 하락한 3.76%를 나타냄
- 금리가 하락흐름을 보임에 따라 유통시장내 국채거래량은 3월 136.4조원에서 4월 112.9조원으로 감소
- 국고채 발행규모는 3월 3.79조원에서 4월 4.96조원으로 증가

✓ 회사채 수익률도 하락세

- 회사채 수익률(3년)은 국고채와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어 지난달에 비해 0.16%p하락한 4.18%를 나타냄
- 회사채 발행규모는 3월 5.43조원에서 4월 4.23조원으로 감소
- CD(91일)는 지난달에 비해 0.06%p 하락한 3.48%를 기록
- 콜금리(1일)는 지난달에 비해 0.03%p 상승한 3.29%를 기록

✓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세 지속

- 장·단기 금리차는 4월중 축소세가 지속되어 월초 0.70%p에서 월말 0.47%p으로 축소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 %p)

구 분	2004.9	2004.12	2005.1	2005.2	2005.3	2005.4	전월비
국고채(3년)	3.53	3.28	4.06	4.04	3.91	3.76	-0.15
회사채(3년)	4.03	3.72	4.53	4.49	4.34	4.18	-0.16
CD(91일)	3.54	3.43	3.57	3.55	3.54	3.48	-0.06
콜금리(1일)	3.55	3.29	3.26	3.28	3.26	3.29	0.03
장·단기 Spread	-0.02	-0.01	0.80	0.76	0.65	0.47	-
종합주가지수	835.09	895.92	932.70	1,011.36	965.68	911.30	-54.38
코스닥	362.08	380.33	472.95	498.38	455.03	424.40	-30.63
환률(W/US\$)	1,151.8	1,035.1	1,025.6	1,006.0	1,015.5	997.10	-18.40

주: 장·단기 Spread: 국고채-call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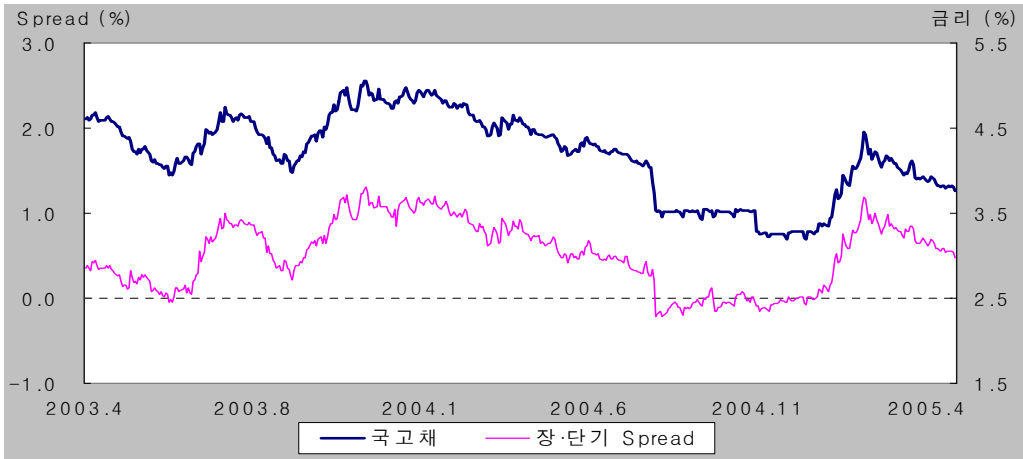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05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 주가는 4월 중반 이후 큰 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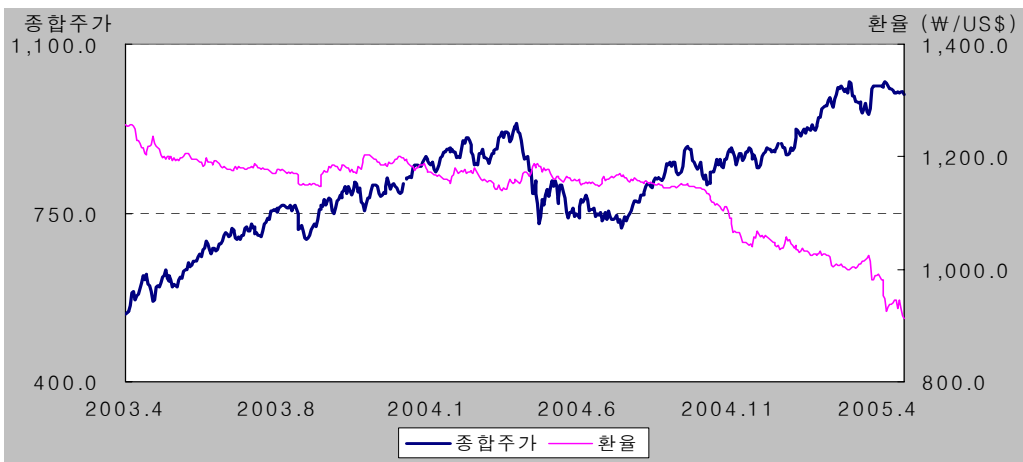
- 종합주가지수는 미국증시 약세, IT업종 1/4분기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54.38p 하락하여 911.30p를 나타냄
- 코스닥지수도 종합주가지수와 동반 하락하여 3월말 보다 30.63p 하락한 424.40p를 나타냄
- 거래소 외국인의 순매도는 3월 2.1조원에서 4월 0.3조원으로 급감

✓ 원/달러 환율은 4월중 하락세 지속

- 원/달러 환율은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미국 경기지표의 부진 등으로 인해 월 중반에 큰 폭 하락세
- 이후 1,0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난달 말에 비해 18.40 하락한 997.10으로 마감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창·업·동·향 |

신설법인수 소폭 감소

✓ 서울시 4월 신설법인수 소폭 감소

- 서울시 신설법인수는 1,789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7.1% 소폭 감소하였지만 작년 4월의 창업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신설법인의 감소 폭은 전국 신설법인의 감소 폭(14.5%)보다 낮음

✓ 제조업의 신설법인수 증가

- 제조업의 신설법인수는 188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3.9% 증가
- 세부업종별로는 음식료품(-47.4%), 고무 및 화학제품(-35.3%)등은 감소한 반면 기타제조업(228.6%), 섬유 및 가죽(27.3%)등은 증가

✓ 건설업 및 설비업 신설법인수 감소

- 건설 및 설비업의 신설법인수는 107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33.5% 감소
- 세부업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68.4%)과 건설업(-28.9%) 모두 감소

✓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 감소

-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는 1,491개 업체로 지난달에 비해 5.6% 감소
- 세부업종별로는 대부분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가 감소한 가운데 운수업(-39.8%), 기타서비스(-27.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25.8%)의 하락폭이 큼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 %)

구 분	2004.4	2005.3	2005.4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108	5,315	4,546	438	10.7	-769	-14.5
서울	1,760	1,925	1,789	29	1.6	-136	-7.1
제조업	229	181	188	-41	-17.9	7	3.9
건설 및 설비업	109	161	107	-2	-1.8	-54	-33.5
서비스업	1,422	1,580	1,491	69	4.9	-89	-5.6

자료: 중소기업청, [2005년 4월 신설법인 동향]

| 어 · 음 · 부 · 도 · 율 |

어음부도율 안정세 유지

✓ 서울시 4월 어음부도율은 소폭 증가

- 서울시 어음부도율은 0.04%로 지난달에 비해 0.01%p 상승하였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
- 서울시 어음부도율은 전국 어음부도율 0.05% 보다 낮은 수준임

✓ 서울시 4월 부도업체 수는 감소

- 서울시 부도업체 수는 106개 업체로 지난달 보다 45개 업체 감소
- 전국 부도업체 수는 296개 업체로 지난달 보다 63개 업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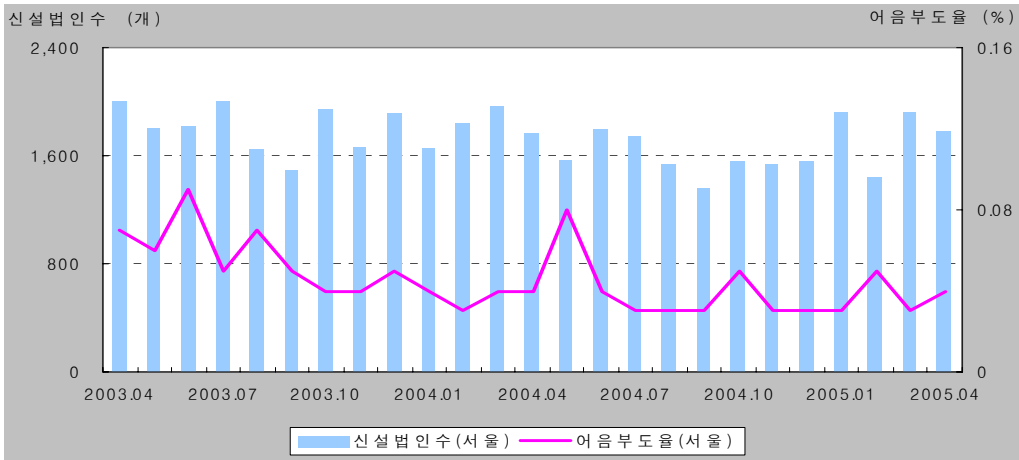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 %, %p)

구 분		2004.4	2005.3	2005.4	전년동월비 증감	전월비 증감
전국	어음부도율	0.06	0.04	0.05	-0.01	0.01
	부도업체 수	355	359	296	-59	-63
서울	어음부도율	0.04	0.03	0.04	0	0.01
	부도업체 수	128	151	106	-22	-45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부도업체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05년 4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그림>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건 · 설 · 경 · 기 |

서울시 건설경기 하락세 지속

- ✓ 서울시 건축허가면적은 2005년 4월에도 하락세 지속
 - 서울시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4월에 비해 7.4% 감소하여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
 - 반면,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대구(386.8%), 대전(302.4%) 충북(91.3%)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작년 4월에 비해 30.5% 증가
- ✓ 아파트 건축허가면적 대폭 상승
 - 건축허가면적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축허가면적이 작년 4월에 비해 큰 폭(327.0%)으로 증가하는데 힘입어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99.9% 증가
 - 이에 비해,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4월에 비해 24.4% 감소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감소는 상업부문과 공업부문의 큰 폭 감소에 기인함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

구분		2004.4	2005.3	2005.4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7,716	9,653	10,071	30.5	4.3
서울		1,018	1,488	943	-7.4	-36.6
주거용	소계	139	619	279	99.9	-55.0
	단독	17	12	21	26.9	75.8
	연립	74	43	49	-33.2	13.8
	아파트	49	564	208	327.0	-63.1
비주거용	소계	879	869	664	-24.4	-23.5
	상업	713	471	417	-41.5	-11.4
	공업	35	14	7	-79.6	-49.7
	문교/사회	122	248	161	32.2	-35.2
	기타	9	136	79	765.9	-41.8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2005년 4월분 건축허가통계]

- ✓ **서울시 대부분 지역의 하락세 속에 송파구, 동작구 및 강서구의 건설경기 호조**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아파트 건축허가면적 증가의 영향으로 양천구(3,653.3%), 동작구(2,815.3%), 영등포구(1,435.8%), 강서구(1,146.0%)에서 큰 폭으로 증가
 -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대부분의 구에서 감소한 반면 송파구(1,746.5%)의 높은 증가율이 두드러짐

- ✓ **건설발주액은 증가**
 - 서울시 건설발주액은 건축허가면적의 감소세와는 대조적으로 4월중 16.6% 증가를 나타냄
 - 서울시 건설발주액 증가율은 전국의 증가율 29.1%보다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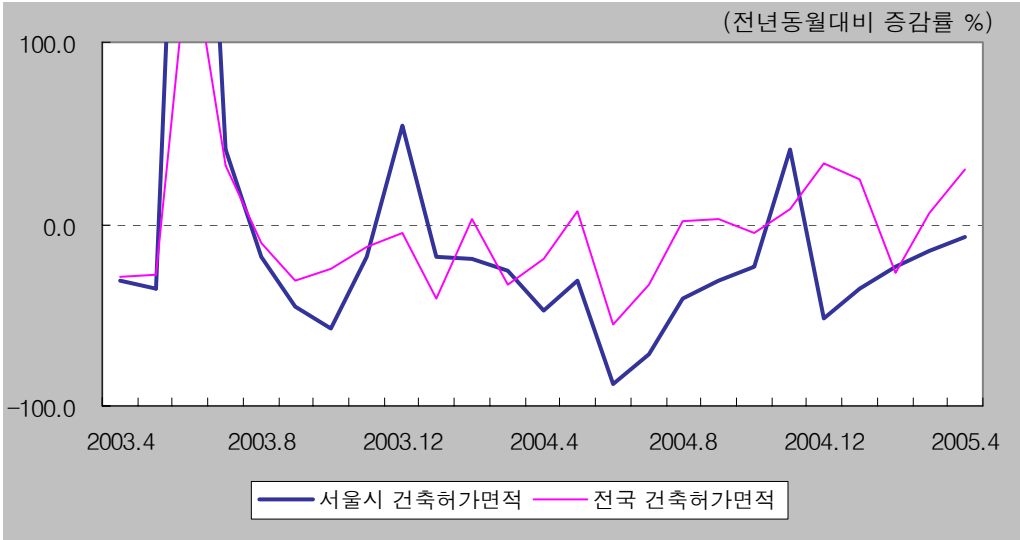
- ✓ **공공부문발주 대폭 증가**
 - 공공 발주는 532.2% 증가한 반면 민간 발주는 33.4% 감소하여, 공공부문 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건축공사 발주는 20.7% 증가한 반면 토목공사 발주는 57.2% 감소 것으로 나타남

〈표〉 건설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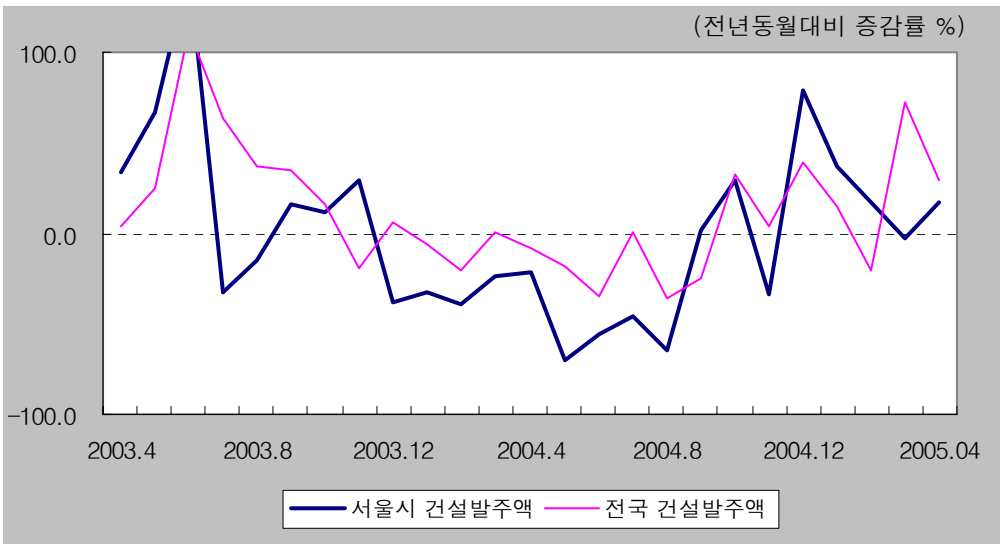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2004.4	2005.3	2005.4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5,073,584	9,128,285	6,550,177	29.1	-28.2
서울		1,048,447	1,121,746	1,222,703	16.6	9.0
발주자별	공공	90,028	17,293	569,191	532.2	3191.5
	민간	951,134	969,580	633,512	-33.4	-34.7
공종별	건축	978,725	1,010,739	1,181,544	20.7	16.9
	토목	39,441	74,254	16,885	-57.2	-77.3

자료: 서울통계사무소, [2005년 4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그림> 건축허가면적 서울, 전국 비교



<그림> 건설발주액 서울, 전국 비교

| 주 · 택 · 가 · 격 |

부동산 시장 상승세 지속

✓ 서울시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 지속

- 연초 급매물소진, 양도세 증과에 의한 매물감소, 추가적인 가격상승기대로 인한 매물회수 등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호전되어 상승세 지속
- 주택매매가격은 4월중 0.7% 상승하여 3개월 연속 상승세 시현
-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폭은 전국의 상승폭 0.6%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이 두드러짐

- 강북, 강남의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강남이 1.2% 상승폭을 보임
- 구별로는 강남 지역 가운데 서초구(2.8%), 강남구(2.5%), 송파구(2.2%)와 강북지역의 용산구(2.1%)의 상승폭이 커 눈길을 끌었음
- 반면 동대문구(-0.2%), 은평구(-0.2%), 관악구(-0.1%), 노원구(-0.1%)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세 지속

-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1.2% 상승
-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국의 상승폭 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9=100.0, 단위: %)

구 분		2004.4	2005.1	2005.2	2005.3	2005.4
전국		0.2	-0.3	0.3	0.4	0.6
서울		0.4	-0.3	0.6	0.3	0.7
아파트(서울)		0.7	-0.3	1.0	0.5	1.2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2	-0.3	0.2	0.3	0.2
	강남	0.6	-0.3	1.0	0.4	1.2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2005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강남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지속

- 지역별로는 강북이 0.2% 상승한 반면 강남은 1.9% 상승하여 지역별 상승폭의 차이가 큼
- 구별로는 강남지역 가운데 서초구(4.0%), 강남구(3.1%), 송파구(2.9%), 강동구(2.7%)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큼
- 반면, 성북구(-0.2%), 강북구(-0.1%), 노원구(-0.1%), 관악구(-0.1%)는 소폭 하락

✓ 서울시 전세가격은 횡보

- 서울시의 전세가격은 지난 3월과 같은 수준을 보임
- 하지만, 지역적으로 주택전세가격의 등락의 차이를 나타내어 강북은 0.3% 하락한 반면 강남은 0.4% 상승
- 구별로는 서초구(1.4%), 금천구(1.0%), 동작구(1.0%)의 상승폭이 크고, 동대문구(-0.9%), 은평구(-0.9%), 성동구(-0.8%)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상승세

-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은 4월에 0.4% 상승
-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폭은 전국의 상승폭 0.6%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강북 아파트전세가격(0.0%)은 횡보한 반면 강남 아파트전세가격(0.6%)은 상승세
- 구별로는 동작구(1.7%), 서초구(1.5%), 용산구(1.5%)의 상승폭이 크고, 강북구(-0.2%), 강동구(-0.2%)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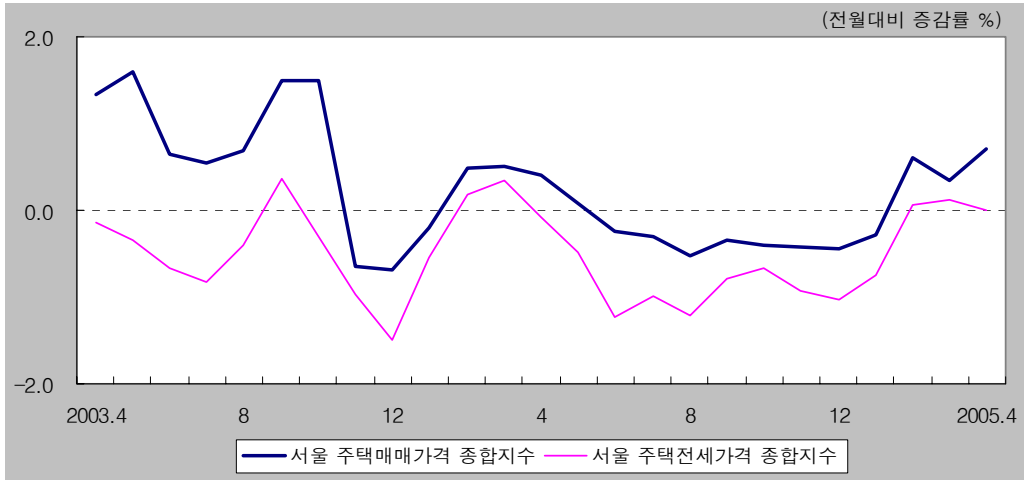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9=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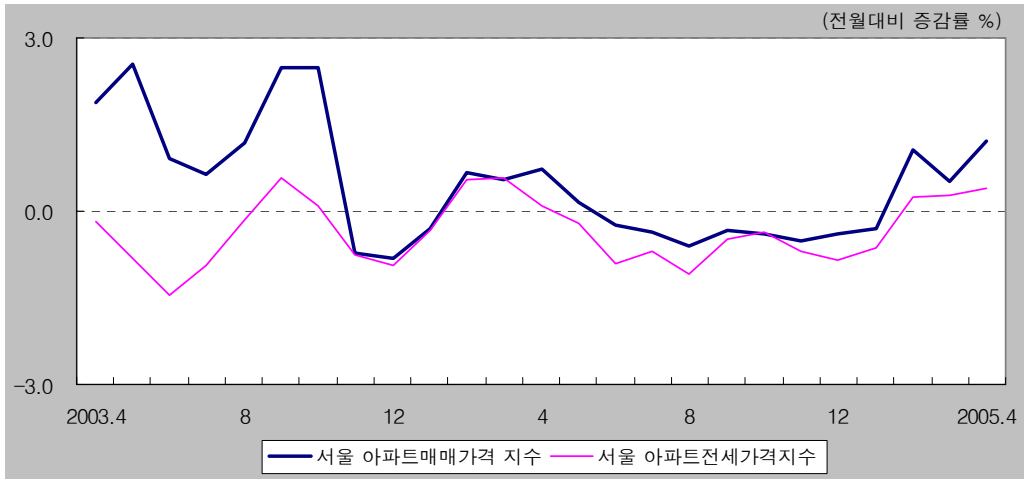
구 분	2004.3	2005.1	2005.2	2005.3	2005.4
전국	0.4	-0.5	0.2	0.4	0.4
서울	0.3	-0.7	0.1	0.1	0.0
아파트(서울)	0.6	-0.6	0.2	0.3	0.4
지역별					
강북	0.2	-0.8	-0.1	0.2	-0.3
주택전세					
강남	0.5	-0.7	0.2	0.1	0.4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2005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그림>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